

김영록 “전남 의대, 공모 통해 단일 대학 선정”

‘통합의대’ 추진 5개월만에 선회 2026년 신설 목표...200명 정원 정부, 구체 대학·지역 선정 요구 목표대 반발 등 지역 갈등 우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지역 의과대학 신설 방안이 기존 전남도가 추진하던 ‘통합 의대안’에서 공모를 통한 ‘단독 의대안’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지역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추진했던 통합 의대가 불발되면서 국립 대학을 보유한 동·서부권의 치열한 경쟁 및 정쟁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어느 대학에 설립할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통합 의대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국립의대 설립 이후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공모 방식으로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대학을 선정키로 하면서 사실상 도내 국립대학인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가 공모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입지 선정을 위해 전남도는 먼저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을 공모 주관 기관으로 지정하고, 의대 유치 대학 선정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전남권 국립 의대는 2026년 신설을 목표로 정확한 규모나 시기,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규모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거점 국립 의대 수준인 200명에 기준해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남도는 △지역 내 의료체계의 완결성 구축 △도민 건강권 확보 △지역 상생발전 도모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대형건설 업체 위탁 등 4가지 원칙을 기조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모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남도가 통합 의대 유치를 추진하지 불과 5개월여만에 단독 의대 유치로 입장을 선화한 데는 정부의 전남권 의대 신설 의지 표명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분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직접 전남권 의대 유치 추진을 약속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하면서 전남 의대 신설 의지를 표명했다. 다

만 정부의 전남권 의대 신설 추진 의지에 명확한 대학 및 지역 선정이 전제되는 점, 2026년 신설을 목표로 속도감 있는 의대 유치 추진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진 방안을 변경한 것이다.

김지사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정부당국자와 협의를 통해 5월 대입 전형 발표 등 여러 여건을 고려했을 때 통합 의대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그동안 전남도가 범도민추진위 발족, 범도민 결의대회 개최, 캐나다 노던 온타리오 의대 벤치마킹 등 전남권 통합 의대 유치에 사활을 걸어온 만큼 단독 의대 공모 방식 변경에 대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 2면에 계속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광주시청, 6월 ‘열린 청사’로 재탄생

‘시민이 머물고 싶은 공간’ 탈바꿈 강 시장 ‘행정·문화·정치 담론 공간’

개정 20주년을 맞은 광주시청사가 시민들을 위한 열린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광주시는 2일 4월 정례조회를 열어 ‘시민이 머무르고 싶은 열린청사 조성 방안’을 공유했다.

광주시는 지난 2022년부터 열린청사 조성을 위해 현안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선진지 견학,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꾸린 전담팀(TF) 등을 통해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지방재정의 숲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더해 2022~2023년 열린청사 조성사업 재원을 마련했다.

먼저 청사 외부는 시민 편의를 위해 ‘광장’ 기능을 살리기로 했다. 출입제한, 폐쇄적인 느낌의 시청사에서 시민들이 청사

외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전면 개방감을 확대한다. 또 보행 동선을 가로막는 표지석, 격자형 보도, 지장물 등을 철거하고, 대신 쉼터 등을 마련해 열린공간으로 조성한다.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청사 내부 1층은 시민이용도가 낮은 시설을 비웠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인카페를 새로 열고, 캐스퍼 홍보관은 눈에 띄는 위치로 이전하며, 시민고객맞이방은 독립공간으로 꾸미고, 시민들이 이용가능한 회의실 등과 함께 일원화해 시민참여형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열린청사는 오는 6월 준공 예정이다.

치평동 청사는 2004년 3월30일 현재 위치로 이전해 개정 20주년을 맞았다.

강기정 시장은 “시청사는 시민행복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당연하다. 나아가 역울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담론 생산지이자, 공공이



투표 하GO, 자전거 타GO 홍보캠페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를 사흘 앞둔 2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에코바이크 회원들이 광주 광산구 쌍암공원에서 ‘투표 하GO, 자전거 타GO’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시민들에게 투표 참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가진 예술작품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유처가 되어 한다”며 “열린청사의 시작은 우리의 발걸, 눈길, 바람길 등

을 가로막는 지장물을 없애는 것이었다. 이에 더해 행정적, 정치적, 문화적 서비스를 신속히 하고, 시민들을 따뜻하고 친절

히 맞이하는 배려까지 갖춰지면 열린청사는 완성될 것이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全南日報가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전남해외상설판매장

- 동남아시아** ONE MART
- 유럽** Sunrise Supermarkt, K-Shop
- 미주** 한남 Buena Park, 한남 LA, 한남 Torrance, 한남 Del Amo, 한남 New Jersey
- 호주** FREEZIUM MARKET, SEOUL MART

▶ 생명의 땅, 청정 전남에서 나고 자란 우수한 농수산물을 지구촌 곳곳에 알립니다.
▶ 골든힐은 수출에 관심 있는 전남소재 식품제조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골든힐 | 전남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455-90 | T. 061.332.1998 F. 061.334.1997 | E. golden0311@naver.com